

# “불교문화 안내는 포교다”

전문관광가이드들이 관광객이 되어 사찰에 대한 안내를 받는 이색적인 연수회가 열렸다. 외국인 전문관광가이드와 국제 포교사 국제포교사연수생 등 60여명이 5월 28일부터 이틀간 관광객의 입장에서 경주일원의 불교유적에 대한 안내와 강의를 받은 것이다. 이번 연수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이 불교문화의 저변확대

## 조계종, 관광가이드 60여명 초청 '우리문화 바로알자' 연수회 실시

와 오는 9월로 예정된 경주문화엑스포를 대비해 보다 정확한 불교문화 알리기를 위해 마련했다. 포교원은 한국관광공사에 인정하는 상위 80위권 관광업체에 중사하는 가이드를 초청대상으로

했다. 경주지역은 불교유적이 대부분인데다 일본관광객들이 많아 불교를 모르는 가이드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서 참석자들의 호응이 컸다.

'우리 문화를 바로 알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는 강의와 슬라이드 상영, 문화 유적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문화유적답사는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 분황사 황룡사지 경주박물관 등에서 이뤄졌다. 첫날 일제 식에서 성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효율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이은호 기자)



전문관광가이드 60여명이 불국사 경내에서 사찰에 대한 안내교육을 받고 있다.

### 뉴스 & 뉴스

**전화 한통화 포교후원금**  
대구불교방송(사장 법타)이 포교후원전화회를 개설했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관계없이 700-0408이며 한통화당 5천원의 포교후원금이 부과된다. 대구불교방송은 질 높은 포교방송을 제작하는데 후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053)427-5114

**'인권문제해결...' 간담회**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10일 오후 2시 조계종 포교원회의실에서 '국민 정부 하에서의 인권문제 해결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타(평불협 회장) 지선(백양사 주지) 진관 청화(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스님 등이 참석해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현정권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불교계의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쌀 15가마 실직자장에 전달**  
새불교전국승가회(공동회장 진관·석담)는 5월 한달동안 '실직자 기정에 쌀보내기 운동'을 펼쳐 온 가운데 10일 서울시 금천구청에 쌀 15가마를 기탁한다. 금천구청은 관내 실직자 가정 30가구에 쌀을 전달한다.

**대원불교대 법사단 교육**  
대원불교대학 법사단(단장 권순)은 6일~7일 충북괴산 다보수련원에서 법사단원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불교에 있어서 재가법사활동에 대한 전망(강건기교수)·IMF와 불교운동(김원우법사)·대중불교운동을 위한 조직의 정비(신종기법사) 등의 교육을 통해 대원불교대 법사단은 전국조직을 정비하고 대중불교운동 단체인 새로운 출발을 할 예정이다.

**명성여고 복지기 성금기탁**  
명성여고(교장 이원주)는 북한동포 돕기 성금 1백90여만원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스님) 북한금강국수공장후원회에 기탁했다.  
성금 모금에는 불교학생회(회장 도혜진)가 주축이 되어 5월1일부터 25일까지 전교생이 동참했다.

**원각사앞 아파트건설 취소**  
전통사찰인 선산 원각사(주지 대혜) 앞 고층아파트 건설이 전면 백지화됐다. (본보 175호 참조)  
원각사와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는 28일 회의를 갖고 사찰경계로부터 5m 거리에 있는 12층 규모의 1개동을 설립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하는데 최종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사건25시' 스님 왜곡**  
조국평화통일위원회(공동위원장 원혜·송강)는 지난달 26일 KBS-1TV '사건25시' 프로그램에 스님과 사찰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제작진에 해명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

# 불교교양대 인가제 도입

## 조계종 내년 실시...올 포교사고시 11월에

불교교양대학 인가제가 실시된다.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22일 인가제 도입방침을 밝히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가제는 포교원에 등록된 불교대학 가운데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학제 2년 이상 △불교인문 등 기초필수과목 18시간 이상 강의 △70명 이상의 수강시설 확보 등의 엄격한 기준을 갖춘 불교대학에 한해 포교원 심의를 거쳐 등록제와 차별화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인가된 불교대학에는 포교원장과 해당대학장의 공동명의로 졸업장을 수여하고 포교사고시 응시 때 가산점을 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포교원은 신도교육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년 이

상 신입생 모집 및 졸업생 배출이 없거나, 포교원에 학사관리보고를 하지 않는 불교대학은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포교원은 또 올해 포교사고시를 11월 22일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키로

## 조계종 군법사 인사과동 '조사'

관련 군법사 출석통보  
군법사 인사과동과 관련(본보 175호 보도), 조계종포교원이 경위조사와 공정한 인사를 위한 대책수립에 나서는 등 이 사건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포교원은 "육군 군법사 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반발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사초안을 작성해 육본 인사참모본부에 제출한

했다. 실시 방법은 예년과 동일하나 신도증 미발급자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 불교대학에 재학생이거나 졸업자 가운데 포교사고시 응시희망자는 신도증 신규발급 서류를 9월말까지 포교원에 접수해야 한다.

## 통합 증무관리 '금강장사 포원' 투투컴퓨터 SW개발

밀레니엄 버그에 대비한 윈도우용 통합 증무, 신도관리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사찰전산화, 전문화인 투투컴퓨터(대표 남창중)가 최근 출시한 '금강장사 포원'은 윈도우용 프로그램으로 신도관리와 인종관리, 영가관리, 회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고 특히 연도표시의 관련해 기존 프로그램들이 꼭 단치게 될 밀레니엄 버그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윈도우95 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금강장사 포원'은 기존의 도스용 신도관리 프로그램에 비해 신도·인종·불사·연동·회계·생일·일지·명함·설립자료·우편물관리 등이 프로그램 하나로 사찰중무행정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다기능을 가지고 있다. (02-585-1141, 051-505-2434)

# 北 금강국수공장 '가동중'

## 5월말...재해지역 어린이 국수배급 평불협, 밀가루 60톤 조불련에 전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가 황해북도 사리원에 설립한 금강국수공장이 5월말 가동돼 재해지역 탁아소 인민학교 어린이들에게 우선 배급을 시작했다. 평불협은 미주본부(회장 도안)를 통해 5월22일 밀가루 60톤 3개월치(1억5천달러 상당)를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했다. 금강국수공장은 하루에 2천2백명분의 국수를 생산해 재해지역 어린이들에게 보급을 시작하고 금강국수공장은 차츰 입산부와 조불련 회원 불자들에게 배급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평불협은 7월초경 평불협 대표단의 방북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강국수공장 후원 (02)735-0559

## 종교편향대책위, 부산지검에 '금선사 사태' 공식답변 요청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강, 원혜스님)는 5월 28일 부산 금선사 사태에 대한 부산지방법검찰청의 공식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책위는 공문에서 △경정제시도 없이 법당을 구두탈탈 밟고 다니고 △금선사부설 어린이집 원장 김성경씨(35세, 여)를 원생들과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

을 채워 강제연행한 것은 교린단장이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부산지검 강력부 안혁환검사는 5월16일 '하도급업자 2명이 폭력배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검찰수사관 12명을 금선사로 파견, 사찰 내 현관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유초스님 등 8명을 강제연행했다.

## 종교편향대책위, 부산지검에 '금선사 사태' 공식답변 요청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강, 원혜스님)는 5월 28일 부산 금선사 사태에 대한 부산지방법검찰청의 공식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책위는 공문에서 △경정제시도 없이 법당을 구두탈탈 밟고 다니고 △금선사부설 어린이집 원장 김성경씨(35세, 여)를 원생들과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

을 채워 강제연행한 것은 교린단장이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부산지검 강력부 안혁환검사는 5월16일 '하도급업자 2명이 폭력배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검찰수사관 12명을 금선사로 파견, 사찰 내 현관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유초스님 등 8명을 강제연행했다.

## 종교편향대책위, 부산지검에 '금선사 사태' 공식답변 요청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강, 원혜스님)는 5월 28일 부산 금선사 사태에 대한 부산지방법검찰청의 공식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책위는 공문에서 △경정제시도 없이 법당을 구두탈탈 밟고 다니고 △금선사부설 어린이집 원장 김성경씨(35세, 여)를 원생들과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

호국보훈의 달 값진희생 추모하고 빛남공훈 예우하자

# "27년전 사라진 금불상 찾아라"

## 창녕 계성중 동문회...비로자나불 추정

1971년 봄 경남 창녕군 계성중 교정에서 발견됐다가 의문속에 사라졌던 금불상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이 학교 출신 동문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김중찬(41, 계성중 1회 동창회 부회장) 우영조(41) 강양규(41)씨 등은 학교 교정에서 농장 잡지작업을 하던 도중 금불상을 발견, 학교에 맡겼다. 그러나 여름방학이 지나고 개학을 해서 돌아온 학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중 자물쇠 잠치가 돼 있는 캐비닛에 있어야 할 금불상이

갑갑같이 없어진 것. 최근 창녕군청 공보실에 근무하고 있던 김중찬씨의 귀에 당시 교정에서 발견했던 금불상 모양이 사설미술관에 전시돼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씨는 금불상에 대한 추억이 새삼 떠오르게 되자 동창회를 중심으로 금불상 찾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중찬씨의 기억에 어렵게 남아있는 금불상은 크기가 20~25cm 정도로 머리부분에 약간의 손상이 있으며,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의 손가락을 감싸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비로자나불상으로 추정된다.

대중문화 포교사들이 5월28일 소피텔 연버서더 호텔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불자예술연합회(회장 이성용)가 마련한 이날 연합 대회는 불자 문화예술인들이 불법홍포와 대중문화 포교를 다짐하는 제도의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회원인 불자 예술인들 보다는 자원위원님들과 내빈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해 아직도 불자예술인들의 참여가 저조함을 보여줘 아쉬움이 남았다.

포교활동은 '일당백'이 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불자 예술인들은 타종교 예술인들에 비해 포교활동이 뜸했던 것이 사실이다. 직업적 특성상 스케줄을 함께 맞춰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대중문화 포교사들의 활력이 잃고 있다. 이유는 크게 불자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고 종교·사찰의 관심부족으로 모아진다. 불자예술인들이 종교인이나 사찰에 소속되지 않은채 자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불교계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는 요인으로

김 주 일 (취재2부 기자)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원명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통 수련원으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원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潭 合掌  
전화: 0374-32-7464 F: 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청학사 수양원 ◆ 동禪寺 ◆**  
전통예술과 고유미술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종합 수련원으로 대금, 태평소, 가야금, 배추춤, 전통무용, 사물놀이등과 선무도, 불상, 권법, 호신술 등을 지도하여 文, 武, 藝를 겸비한 全人敎育의 場을 淸학寺로 하오니 우리 문화와 예술에 관심 깊은 분의 많은 수련을 바랍니다.  
단 일일 회원은 대우회·복·호수만 가능  
단 스님 불자는 특별 개인지도와 출성지도 단체지도도 가능한  
단 스님의 심사를 거쳐 지도자 자격(유지) 무용 유급(도) 허용함  
0523)82-5074, 388-0921(FAX 겸용)

**용굴산 종합심신 수련원 ◆ 東禪寺 ◆**  
전통예술과 고유미술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종합 수련원으로 대금, 태평소, 가야금, 배추춤, 전통무용, 사물놀이등과 선무도, 불상, 권법, 호신술 등을 지도하여 文, 武, 藝를 겸비한 全人敎育의 場을 淸학寺로 하오니 우리 문화와 예술에 관심 깊은 분의 많은 수련을 바랍니다.  
단 일일 회원은 대우회·복·호수만 가능  
단 스님 불자는 특별 개인지도와 출성지도 단체지도도 가능한  
단 스님의 심사를 거쳐 지도자 자격(유지) 무용 유급(도) 허용함  
0523)82-5074, 388-0921(FAX 겸용)

**하계수련대회 유치**  
삼도봉의 청정계곡에 위치한 만계사에서 여름철을 맞이하여 학생 및 불교신행단체의 소규모(50명 이내) 하계 수련대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대회개최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일정을 잡아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만계사 (0547)437-4135~6

**성동석재불사공에서**  
◆ 미륵불·지장불·석탑 석등 ◆  
◆ 석재 동물상·석재·조형물조각 ◆  
◆ 석재불사에 관한 모든 것 ◆  
\* 천불·삼천불·만불 조성전문  
T.0357)31-8736  
011)284-5101  
012)321-6044  
F.0357)31-5549

**국악·전통무용 공연**  
경로·환갑 각종 공연행사 기획·상담·공연  
02)925-1303  
서울예술공연기획 신상철

**탈원공고**  
● 성명: 양재규  
● 법명: 해원스님  
● 주민등록: 180411-1408619  
● 승려번호: 0646-132  
선학원을 탈원합니다  
1998. 5. 8.

**무료담선법회**  
: 월~금 오전10~12시까지  
매주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금강경  
● 심신건강상담소  
-개인상담: 월~금 오후 1~6시  
-직접인·대학생: 월·수·금 오후 7시~9시  
-방문상담: 토·일요일  
강남구 역삼동 제일생명 4거리 부근  
02)539-1478  
015)8312-5478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자연형) 테크팩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항비 香妃!**  
이 항비를 신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인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작용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봅니다.  
항비는 자연형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항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힘의 흐름, 몸의 흐름, 리라리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대 밧줄이 걸고 딱딱하다  
11. 배나 목두 근처에 살이 쪼면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바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담노나 감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